

“하루빨리 탄핵 정국 끝나 평범한 일상 돌아오길”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 5·18민주광장尹퇴진 쉼터대회 시민 1500여명 모여 파면 요구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계획 포기 “현재 탄핵 인용때까지 집회 참석”

“계엄만 아니었다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이었을 텐데...”

‘12·3사태’의 여파는 시민들에게 공포로, 이는 곧 분노로 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지난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175개 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7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열었다.

‘파면하고 해체하고 처벌하 락(樂)’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 참여한 1500명의 시민들은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여 일상의 회복과 사회 안정화를 염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앞서 광장 일대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부스를 운영하며 핫팩과 가래떡, 커피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시민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계획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채도영(31)씨는 “영화관에 가려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영화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연대의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평범한 주말이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화순에서 온 이은지(30)씨는 “집에서 걱정하며 불안해하느니 직접 집회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친구들이 전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안 그래도 약속을 잡기 어려운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해진 약속까지 죄다 취소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계엄이라는 큰 일이 터져서 작은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평소 같은 주말이라면 가족끼리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보냈을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대학생이 되기 전 마지막 연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원소윤(19) 양도 “성인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설렸는데, 벌써 약속이 4개나 취소됐다”며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을 받

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집회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곧 대학에 가게 되는데, 그전에 괜찮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시민들은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미(26)씨는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과 잡았던 약속이 전부 집회 참여 모임으로 변경됐다”며 “탄핵 정국이 끝나면 주말에 못 잤던 잠을 몰아서 푹 자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봉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이지만 윤석열은 조금의 반성의 기색도 없다. 국민의힘도 당의 이익만을 위해 반격하고 있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5·18민주광장에서 총결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공예 산타 페스타

지난 21일 광주 남구 양림동 펜곤마을공예거리 일원에서 열린 공예 산타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나전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막말에 성희롱까지’ 광주 지방의원들 잇단 물의

회의 중 욕설·유혹주점 술자리 등 민주당 광주시당 “일탈 행위 사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연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지방의원이 회의 중 욕설·부적절한 언행, 유혹주점 술자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A의원은 지난달 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승진에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위원 5~6명이 참석했다.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행정감사 기간 노조는 갑질 예방을 위해 연일 피켓팅에 나섰지만, 욕설 논란에 이어 공무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까지 접했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성의 외모를 승진 인사와 연결한 발언을 하는 것은 기초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고경애 의원은 회의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해 빈축을 샀다.

고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32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끝낸 이후 “개XX가 싸XX없이”라고 욕설하는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담담 공무원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고 의원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이에 김근호 의원은 “회기 내내 발언권을 제한한 적이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한 것이 맞으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본 의원을 희생양 삼았다”고 반박하며 고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 또한 탄핵 정국이 한창인 지난 16일 광주 상무지구 한 유혹주점에서 술자리를 즐겨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동석자 15명 중 폭력조직 연루설이 있는 인물도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주점은 옛부터 알던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퇴폐적인 곳이 아닌 드림·기타치며 노는 라이브클럽”이라며 “비상시국에 출입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보고 윤리심판원 회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현·정상아 기자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연번	사업지구	공급용도	소재지	예정지번	면적(㎡)	공급예정금액(천원)	신청예약금
1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전라남도 순천시 아룡동	659-0	7,998	4,522,910	필지당 1천만원
2				660-0	7,781	4,400,190	
3				661-0	5,254	2,971,160	
4				662-0	5,209	2,945,720	
5				663-0	5,259	2,973,990	
6				670-0	1,545	873,710	
7				670-1	1,403	793,410	
8				670-2	1,440	814,330	
9				670-3	1,605	907,640	
10				670-4	1,960	1,108,390	
11				670-5	2,020	1,142,320	
12				670-6	1,590	899,160	
13				671-0	2,000	1,131,010	
14				671-2	2,093	1,183,600	
15				671-3	2,852	1,612,820	
16				671-4	2,177	1,231,110	
17				671-5	2,405	1,360,040	
18				671-6	3,343	1,890,480	

2.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만 가능)		
구분	일정	장소
산업단지 입주사전심사	2024.12.30.(월)~2025.1.6.(월) (10:00~16:00, 주말·공휴일 제외)	전라남도 순천시 신청장산업과
토지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납부	2024.12.30.(월)~2025.1.6.(월) (10:00~16:00)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토지 분양대상자 선정(추첨)	2025.1.9.(목) 13: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 (10층) *시스템 추첨
토지 분양대상자 발표	2025.1.9.(목) 17:00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산업단지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체결	2025.1.10.(금) 09:00~12.4.(금) 15:00 (주말·공휴일 제외)	전라남도 순천시 신청장산업과
토지 분양계약체결	2025.1.20.(월) 10:00~12.4.(금)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 (10층)

3. 입주자격(전라남도 순천시 신청장산업과 확인 ☎: 061-749-4417, 54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임주우선순위,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리기관(전라남도 순천시)의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 전라남도 도보 제2024-28호(2024.6.27.)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릅니다. (* 관리기본계획 중 임주우선 순위는 아래의 1순위~3순위에 따릅니다.)

가) 1순위 :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국내기업 중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나) 2순위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
다) 3순위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한 업체

4. 공급방법 : 추첨

※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공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금납부방법 : 2·3년 유이자 분할납부

구분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잔대금 납부방법
공급금액 20억원 미만	2년 분할납부 (유이자)	공급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공급금액의 90% (매 6개월 단위 4회 균등 분할 납부)
공급금액 20억원 이상	3년 분할납부 (유이자)		공급금액의 90%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 분할 납부)

6.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공고 내용은 대상토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게재하였으므로, 자세한 공고내용, 공급토지별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조건사항 및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공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전라남도 순천시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업단지 입주신청 및 입주심사 문의	☎ 061-749-4417, 5489	전라남도 순천시 신청장산업과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토지 분양신청 및 공급관련	☎ 062-360-3357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토지 공사계획 및 개발업무관련	☎ 061-721-225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도점사업소 전남 순천시 아룡동
LH 청약플러스 관련	☎ 1600-1004	

2024. 12. 23.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